

## < 要 約 >

### 1. 中南美 市場의 戰略的 重要性

#### 1. 中南미 진출의 의의

##### (1) 中南미 시장확대 효과

○ 거대성장시장으로 발전하는 남미 시장에의 교두보 확보

##### (2) 지역주의 광역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북미시장의 교두보 확보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결성, 남미와 북중미를 포괄하는 범미주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 등에 대응한 북미시장의 교두보 확보

##### (3) 자원 보고에의 접근

○ 中南미 국가는 향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광산물·농수산물의 공급처이므로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이를 사전에 확보하는 의의가 있음

#### 2. 中南미 투자 진출의 필요성

##### (1) 지역주의의 투자를 통한 극복

○ 투자 진출은 지역주의의 수입 제한을 우회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역내 국가로 진출하는 적극적인 방안임

##### (2) 경제개발계획의 활용-SOC투자·플랜트 수출의 지렛대

○ 中南미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SOC건설,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됨

##### (3)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방책

○ 개발·조광권 등 확보, 농장개발 등으로 신규 자원 확보

#### 3. 대통령 中南미 순방의 의의 - 적극적 비즈니스 외교의 전개

##### (1) 세계화 정책의 적극적인 전개

○ 中南미 순방은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외교 전개임

##### (2) 정부와 민간 공동의 신흥시장 개척

○ 신흥시장의 개척은 민간이나 정부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3) 21세기를 위한 경제도약의 계기 마련

○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中南미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함

○ 부족 자원의 확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외교 기반 달성

## II. 通商 懸案과 巡訪의 結實

### 1. 방문국 경제 동향 및 통상 현안

#### (1) 중미 5개국(과테말라 및 중미공동시장)

- 중미공동시장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재정적자, 저생산성 등으로 인해 시장확대에 제한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2) 칠레

- 칠레는 자국산 키위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한국은 민영화계획 참여, 자원개발 등과 북중미를 연결하는 거점국가인 칠레로의 투자진출입

#### (3)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한국은 어업협정의 체결과 반덤핑규제, 자동차수입쿼터 확대가 관심사임

#### (4) 브라질

- 브라질은 경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협력을, 한국은 수입제한조치 완화·철폐 및 산림개발, 광업 등 자원개발 진출을 원함

#### (5) 페루

- 페루는 한국기업의 관광개발, 자원개발, 민영화 계획 참여를, 한국은 자원개발, 민영화 참여와 SOC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 각국 순방의 결실

#### (1) 중미 5개국(과테말라 및 중미공동시장)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5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역외 회원국이 되어 이 지역 경제개발 노력에 동참
- 한중미간 정례 대화 협력 체제 구축
- 주요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참여 기반 마련

#### (2) 칠레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로 NAFTA, APEC, MERCOSUR를 연결하는 투자 거점 확보
- 한-칠레 민간 경제위원회의 설치 합의로 민간기업 차원의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주요자원의 확보와 주요 민영화 사업 진출 기반 마련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적극 지원 약속 획득

#### (3) 아르헨티나

- MERCOSUR 주도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와 상호협력 증진 합의
- 무역산업위원회와 賢人(Wise Man)회의의 구성 합의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지원 약속 획득

#### (4) 브라질

- 관광협력협정 및 상용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로 양국간 사업편의 확대
- 2000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로 투자 확대 합의 : 투자규모와 확대와 국영 회사 민영화, 통신시장 참여의 기반을 마련
- 민간경제 협력의 확대
- 브라질 국영광산 민영화 참여 및 SOC건설 진출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지원 약속 획득

#### (5) 페루

- 양국간 민간·정부간 경제협력의 확대 합의
- 페루의 경제재건 계획에 적극 참여를 합의함으로써 SOC, 플랜트, 민영화 사업 등 다양한 투자 기회 확보
- 무상원조 지원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 3. 순방 외교의 기대효과

- (1)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투자·교역의 확대
- (2) 중남미 지역 거점 확보로 미주 시장 우회 진출 확대
- (3) IDB가입을 통한 중남미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본격적인 참여
- (4) 각국 민영화 계획 참여 등 경제개발계획 적극 참여
- (5)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와 시장 교두보 마련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 III. 政府 및 企業의 向後 課題

### 1. 중남미 진출 전략의 원칙

- (1) 정책 목표를 합치시키는 투자 전략의 수립과 집행
  - 중남미 각국의 정책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조화시킴으로써 현지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세계화 전략을 합치시키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
- (2)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활용하는 호혜 투자의 확대
  - 중남미 국가의 공업화 단계, 산업구조는 우리와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쌍방에게 이득을 주는 투자를 확대하는 원칙이 필요함
- (3) 지속적·장기적 안목의 투자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중남미 투자 성공의 관건은 중남미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전략이 요구됨
- (4)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한 투자 기반의 정비
  - 투자는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적인 요소가 성공을 좌우함 따라서 인적인 요소의 이해를 위해 문화·체육 학술교류를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對中남미 투자 전략

- SOC 건설 사업에의 적극참여
- 민영화 계획의 적극적인 활용
- 자원의 조기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전략의 수립

## 3. 정부의 과제

- (1) 순방 외교 성과의 조속한 마무리 작업
- (2) 중장기적 해외투자 진흥 전략의 수립
- (3)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체제 정비
  - 해외투자규제 완화 및 지원자금의 대폭 확충
- (4) 투자 기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문화·학술 교류기금의 마련과 해외한국학연구센터의 건립으로 투자기반 확대

## 4. 기업의 과제

- (1) 중장기 해외투자 전략의 수립
  - 투자의 성공요인은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의 수립임
- (2) 국내외투자를 연계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외 투자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공동화 방지
- (3) 철저한 현지화의 추진
  - 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성과 극대화
- (4)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의 자제
- (5) 새로운 환율관리기법 및 Project Financing기법의 개발
  - 환율 불안정으로 인해 초래될 투자 리스크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환율 관리기법의 개발과 투자자원 조달과 운용방식을 연계시키는 Project Financing 기법 개발이 필요함

### I. 中南美 市場의 戰略的 重要性

- (중남미 진출의 전략적 중요성) 중남미는 신흥거대시장, 북중미시장의 거점, 자원의 보고로 이 지역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전략 시장임
- (중남미 순방외교의 의의) 순방외교는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세계화 전략의 일환임

#### 1. 중남미 진출의 의의

##### (1) 중남미 시장확대 효과

21세기 BEMs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남미 지역 진출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교두보

- 거대성장시장으로 발전하는 남미 시장에의 교두보 확보

-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인 수입대체공업화 및 민중주의(Populism)에서 탈피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외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21세기의 거대성장시장(BEMs : Big Emerging Markets)으로 발전할 것임
- 중남미 각국은 수입대체공업화 및 민중주의에 따라 1980년대 외채위기, 산업성장의 쇠퇴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음
- 1980년대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중남미 각국은 외자의 유치, 수출의 확대를 통한 외채의 상환 등 확대균형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 일컬어지는 혼미의 1980년대를 극복하고 의욕적으로 경제개건을 추진
- 이 전략과 함께 민영화를 통한 재정의 건실화, 脫規制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 결과 1990년대에 중남미 각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의 거대성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남미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편중화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의의가 있음

- 우리의 對남미 교역 규모는 95년 115억 달러, 34억 달러의 흑자임
  - 수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으로 향후 수출 증대의 여지가 큼

중남미 진출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제수지 불안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음

- 우리의 중남미 투자 진출은 95년 3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지역의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임. 투자 누적액을 보더라도 전체의 3.3%에 불과함
- 따라서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국제경기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의의가 있음

(2) 지역주의 광역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북미시장의 교두보 확보

- 칠레의 NAFTA 가입,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결성, 남미와 북중미를 포괄하는 범미주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 등 지역주의가 광역화되고 있음

북미·중미·남미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은 북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의 의의를 가짐

- 1996년 칠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적극적인 추진
- MERCOSUR :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중심이 되어 합의하였고 올해 칠레가 가입하였음. 1995년부터 0-20%의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AFTA와 MERCOSUR의 통합 움직임 등 지역 통합이 가속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NAFTA의 확대 : 미국은 NAFTA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의의 광역화를 도모
  - 1994년 12월 :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주지대 창설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 1996년 7월 : 칠레의 NAFTA 가입 잠정 합의

(3) 자원 보고에의 접근

자원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국제원자재가 안정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음

- 중남미 국가는 향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광산물·농수산물의 공급처이므로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이를 사전에 확보하는 의의가 있음
- 양질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자원부족시대에 대비함
-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써 수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입 가격의 안정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큰 효과

< 주요 부존자원 현황 (1994년)>

| 국 가   | 부 존 자 원 (세계 순위)         |
|-------|-------------------------|
| 브 라 질 | 철광석 (2위), 보크사이트 (3위)    |
| 칠 레   | 동 (1위)                  |
| 페 루   | 은 (2위), 납 (5위), 아연 (6위) |

○ 농수산물 등 식량자원의 확보로 식량안보 획득

농수산물 안정 확보로 식량안보에 기여

-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 저렴한 식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21세기의 식량 안보태세 구축
-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은 대규모 농장지가 있어 농업자원 확보에 적합한 지역임

2. 중남미 투자 진출의 필요성

(1) 지역주의의 투자를 통한 극복

투자 진출은 지역주의의 수입 제한을 우회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역내국가로 진출하는 적극적인 방안

○ 지역주의는 역내회원국의 무역창출효과를 낳아 교역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교역량이 역내회원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짐

-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 지역 중 하나인 북미 시장의 축소를 초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중남미 시장 진출은 미주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주의 탄생을 대비하여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 역외국으로서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 지역주의는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자본유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지역주의 추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내국가의 경제성장이며, 자본부족국인 개발도상국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투자를

통해 이 역내국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 진출은 역내국의 수입제한을 우회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역내국의 무역창출효과를 이용하여 역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임

(2) 경제개발계획의 활용SOC 투자플랜트 수출의 지렛대

중남미 각국에 SOC,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투자가 필수불가결함

-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SOC건설,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됨
  - 중남미 각국은 경제개발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과 플랜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1980년대 외채 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이런 연유로 인해 중남미의 주요 프로젝트는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IDB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회원국이 아니어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함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투자를 동반하여야만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중남미 각국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형 국영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소유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임

(3)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방책

- 이미 개발된 자원을 확보하기는 더 이상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개발·조광권 등 확보, 농장개발 등으로 신규 자원 확보가 필요함
  - 자원개발은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미 알려진 주요 자원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부족한 자원의 확보는 투자를 수반하여야 가능함

- 농업에서의 농장개발 투자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침
- 미개간된 대규모 농지를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과 함께 식량안보를 기할 수 있음

### 3. 대통령 중남미 순방의 의의 - 적극적 비즈니스 외교의 전개

#### (1) 세계화 정책의 적극적인 전개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외교 전개

- 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우리 경제의 활동영역을 전지구로 확장시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우리 상품의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통령의 중남미 시장 순방은 세계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기업의 활동영역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외교의 초점을 통상문제로 옮기는 정책을 보여 준 것임
-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신흥시장은 중국, 중남미, 동구, 아프리카 등이 있으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기존 시장으로의 진출 심화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임
- 우리 경제의 안정·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인 세계화 전략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의의를 갖고 있음

#### (2) 정부와 민간 공동의 신흥시장 개척

SOC건설, 플랜트수출, 민영화 계획 참여는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되는 것이 핵심

- 신흥시장의 개척은 민간이나 정부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기업의 대외 활동은 기업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관계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한 것임
-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한 투자 가능 사업인 SOC건설, 플랜트 수출, 민영화 작업 등 경제개발 사업은 정부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투자재원이 부족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우리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은

정부 차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 자원개발 투자 역시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함

### (3) 21세기를 위한 경제도약의 계기 마련

-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중남미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함
  - 지역주의 광역화로 나타날 미주통합시장에 대비하여 북중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우리의 신흥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짐
- 부족 자원의 확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외교 기반 달성
  - 식량자원, 광산자원 등 고갈이 예상되는 자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함

## II. 通商 懸案과 巡訪의 結實

- (통상현안) 중남미 지역의 경제개발 계획 참여 문제, 수입장벽, 투자활성화가 중요한 통상현안임
- (성과 및 기대효과) 중남미 순방 결과 투자 장애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민영화 참여, SOC투자, 자원개발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1. 방문국 경제 동향 및 통상 현안

#### (1) 중미 5개국(과테말라 및 중미공동시장)

중미공동시장에  
의 SOC진출,  
노동집약적 가  
공산업 투자 등  
을 중미국가들  
은 희망

-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GDP 합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음

- 과테말라는 1991년부터 매년 3%가 넘는 성장률은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물가도 중미국가로서는 낮은 수준인 10%를 약간 넘는 수준임
- 올해 1월에 취임한 아르수(Alvaro Arzu) 대통령은 외환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있음

- 중미공동시장(CACM)의 역내 무역 자유화 추진

- 중미공동시장은 1993년 1차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이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도 곧 공동시장에 가입 예정

- 중미공동시장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재정적자, 저생산성 등으로 인해 시장확대에 제한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중미시장은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북미시장과의 인접성, 대다수 품목의 對美 수출쿼터 비적용, 저임금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자와 SOC부족으로 이 부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음

#### (2) 칠레

- 칠레는 비교적 시장경제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

칠레는 APEC회  
원국이고,  
NAFTA에 가입  
함으로써 북중  
미,남미,아시아  
를 연결하는 거  
점국가임

면서 APEC회원국임면서, 최근 NAFTA에 가입함으로써 북  
중미와 남미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임

- 전임 아일윈 대통령에 이어 현 프라이 대통령도 중도 좌파의  
경제 이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기업의 투자지출, 수출, 소비자  
출도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6% 이상의 실질 성장을 기록하  
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4년간 100만 명 정도가 절대 빈곤 수준에서 벗  
어난 것으로 추정됨

○ 칠레는 세계 최대의 **銅**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지하자원 개  
발과 생산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임

- 칠레의 경제 성장률은 국제 금속 시장에서의 **銅** 가격에 좌우  
될 정도임.
- 따라서 **銅**을 비롯한 지하 자원 개발과 생산량 조절에 의한 적  
정 가격 유지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이슈임
- 향후 칠레의 경제 성장은 **銅** 가격 변동 추이, 해외 자본의 투  
자와 같은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 양국의 통상관심 분야

칠레는 자국산  
키위의 수입제  
한 조치 완화,  
한국은 민영화  
계획 참여, 자  
원개발 등임

- 칠레의 통상관심사는 칠레산 키위 수입 제한 완화이며,
- 한국의 관심사는 정기항공편 개설 및 민영화 계획 참여, 자원  
개발 등임.
- 그리고 양국 공통의 관심사는 검역 및 식물수입에 관한 협정  
의 체결,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문제임
-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 정보통신, 농업개발, 생명공학, 원자  
력, 남극개발 등

(3)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1995년 초 금융위기를 경험하여 단기적으로  
는 금리, 환율의 안정과 실업률 감소가 현안임

- 멕시코 경제 위기의 여파로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이로

단기적으로 금리, 환율의 안정 및 실업률 감소가, 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의 구축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과제임

- 인한 금융 혼란인 이른바 'Tango Effect'를 경험
- 6% 이상의 실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실업률 계속
- 이는 주로 기업의 경영 합리화, 공기업 민영화의 여파임
- 그 결과 페로니즘(Peronism : 前 대통령 페론의 국가주의, 민중주의)의 전통과 향수에 젖어 있는 대다수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자 및 일반 국민들의 現 메넬대통령에 대한 지지 하락

- 장기적,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근로자 권익 우선의 페로니즘 또는 민중주의(Populism)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에 경제 성장과 안정 기조 정착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인 분위기를 접목시키는 것이 문제임
- 대외적으로는 1차 상품, 특히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꾀하는 한편, 원자력 기술과 같은 일부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음

○ 양국 통상 관심 사항

아르헨티나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한국은 어업협정의 체결과 반덤핑규제, 자동차수입쿼터 확대가 관심사임

- 아르헨티나측 제기사항
- 韓電이 필요로 하는 重水(heavy water) 도입시 아르헨티나에서 제공 의사 있음
- 아르헨티나 産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 예정
- 우리측 제기 사항
- 어업협정체결 : 아르헨티나 수역은 원양오징어 어업의 주요 어장
- 反덤핑 규제 완화 : 현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 3건 조사 진행중
-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4) 브라질

- 브라질은 1990년대 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재정개혁, 민영화, 탈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990년부터 외채(1,220억 달러)와 인플레이션(월 50%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경제의 안정 기조가 흔들림

1990년대 초 위기를 극복한 브라질은 재정개혁, 민영화, 탈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카르도소 대통령이 1994년 집권한 후 화폐 개혁을 단행(현행 레알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성공
- 현재 시장경제체제의 안정을 위한 재정개혁, 민영화, 脫규제,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정책 추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따르지 않아 문제가 있음
- 대부분의 산업과 광업 자원을 거대 다국적 기업과 정부가 양분하여 소유하고 있음
- 지주 계급과 농민 계급의 갈등이 지속됨
- 수입대체산업 전략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양국의 통상 현안

브라질은 경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협력을, 한국은 수입제한조치 완화·철폐 및 산림개발, 광업 등 자원개발 진출을 원함

- 브라질측 제기사항
  - 전기, 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 희망
- 우리측 제기사항
  - 자동차, 가전제품, 완구류 등의 관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
  - 산림개발 진출: 펄프 구매나 합작 투자시 협조 요망
  - 은행 진출: 외환은행 지점 설치 협조
  - 통신 협력: 이동통신, TDX(全電子交換機事業) 등에 참여 협조

○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

- 브라질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브라질 국내 자동차업체를 우대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1995. 12.)
- 브라질 자동차 산업 보호 조치의 주요 내용
  - ① 브라질 국내 자동차업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 : '99년말까지 브라질내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거나 이들 생산업체가 완성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특혜 부여
  - 동 조치에 따르면 '99년말까지 브라질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신규투자를 위한 기계장비, 교체부속품 등 자본재의 수입관세(현행 20%)를 90% 감면하고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타이어 등의 수입관세(현행 20%)를 '96년에 85% 감면, 이후 70%, 55%, 40%씩 매

년 순차적으로 감면함

- ② 자동차생산업체의 자동차 수입관세 감면 : 이들 자동차 생  
산업체가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완성차를 수입할 경우 수  
입관세(현행 70%)를 50% 감면

(5) 페루

페루는 후지모리 대통령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민영화와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페루는 1980년대 중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민영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로 나아가고 있음

- 페루는 1980년대 중반, 외채 누적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IMF와 IBRD의 자금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았음. 아울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질 경제 성장의 감소를 경험하였음
- 그러나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재정 긴축과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민영화 프로그램 등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어 1991년에는 2.4%의 실질 성장을 기록하고 1993년부터 IMF와 IBRD의 지원도 재개됨
- 페루 경제는 특별한 제조업 기반이 없고 수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음. 수온 상승으로 인근 해역 해류에 이상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임

○ 양국의 관심 현안

페루는 한국기업의 관광개발, 자원개발, 민영화 계획 참여를, 한국은 자원개발, 민영화 참여와 SOC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페루측 제기사항
  - 남극협력협정 체결 : 페루는 남극대륙의 King George섬에 남극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협정 체결을 준비 중임
  - 관광개발, 자원개발, 민영화 참여
- 우리측 제기사항
  - 어업협정체결 : 페루 수역은 오징어 등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
  - 자원개발 협력 : 석유, 銀, 납, 銅 등의 개발
  - 일부 섬유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 개선 문제
  - 민영화 참여 기회의 확대

2. 各국 순방의 結實

(1) 중미 5개국(과테말라 및 중미공동시장)

CABEI 역외회  
원국 가입, 정  
래 대화 협의체  
창설 등으로  
SOC,플랜트 등  
진출의 기반을  
마련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5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역외 회원국이 되어 이 지역 경제개발 노력에 동참
  - CABEI 역외회원국이 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사업 중  
SOC건설, 플랜트 수출의 기반을 마련함
  - 과테말라의 대기업 중심의 투자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중미시  
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 한중미간 정래 대화 협력 체제 구축
  - 한중미간 대화협력체제가 창설됨으로써 우리와 중미간의 경제  
협력 및 투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미시  
장 진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주요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참여 기반 마련
  - 니카라과의 국영통신공사의 민영화 참여 요구 등 각국의 민영  
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칠레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로 지역거  
점 확보, 자원  
개발, 민영화  
사업 진출 기반  
마련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로 NAFTA, APEC, MERCOSUR를  
연결하는 투자 거점 확보
  - 조속한 시일내 이중과세방지협정까지 체결되어 남미 시장 진  
출의 거점 확보
- 한-칠레 민간 경협위원회의 설치 합의로 민간기업 차원의  
경제협력 기반 확대
  - 민간 경제협력과 정보 교환을 토대로 칠레에 대한 투자 기반  
확대
- 주요자원의 확보와 주요 민영화 사업 진출 기반 마련
  -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의 하나인 銅의 안정적 확보
  - 현대그룹이 체결한 연산 400만 톤 규모의 칼데라(Caldera지역)  
의 동제련사업 계약(최초 3억 달러, 추후 6억 달러까지 확대)

으로 동자원의 확보 뿐만 아니라 연관 사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 SOC사업, 철광산 개발 및 주요 민영화 사업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적극 지원 약속 획득

- 중남미 SOC사업 진출의 계기 마련

(3) 아르헨티나

남미 공동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양국간 협력 체제 마련

○ MERCOSUR 주도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와 상호협력 증진 합의

- 남미공동시장 결속 등 지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주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남미 국가 정책협의체인 리우그룹과의 대화협의체 창설

○ 무역산업위원회와 賢人(Wise Man)회의의 구성 합의

- 투자·교역 부문의 협력 증진 및 상호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의 중남미 진출 여건 마련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지원 약속 획득

- 한국의 IDB가입에 반대 의사를 보였던 아르헨티나의 찬성 약속을 획득함으로써 중남미 SOC사업 진출 기반 마련

(4) 브라질

○ 관광협력협정 및 상용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로 양국간 사업편의 확대

- 브라질 비즈니스의 편의를 위한 상용복수사증 발급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의 편의 확대

○ 2000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로 투자 확대 합의

- 브라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SOC사업, 민영화, 자원개발 사업 참여의 기반 마련

○ 민간경제 협력의 확대

투자규모와 확대와 국영회사 민영화, 통신시장 참여의 기반을 마련

- 민간 차원의 현인회의 창설로 민간 정보교류 확대와 호혜적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
- 브라질 국영광산 민영화 참여 및 SOC건설 진출
  - 현대그룹이 브라질 국영회사 CVRD(Compania Vale do Rio Doce)사의 민영화 지분 5%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출 및 자원 보유국인 브라질의 자원 확보
  - 민영화 사업 참여로 다른 민영화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특히 브라질 통신시장 개방에 한국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지원 약속 획득
  - 중남미 SOC사업 진출 기반 마련

(5) 페루

민간 경험의 확대와 민영화 사업 참여 확대

- 양국간 민간·정부간 경제협력의 확대 합의
  - 무역산업위원회 설치 합의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투자·교역 정보 획득 용이
- 페루의 경제재건 계획에 적극 참여를 합의함으로써 SOC, 플랜트, 민영화 사업 등 다양한 투자 기회 확보
  - 후지모리 대통령의 민영화 사업 적극 참여 요청으로 민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개발 계획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보
- 남극 자원 협정 및 어업협정의 체결
- 무상원조 지원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 페루 정부가 요청한 병원건립 사업에 대해 무상원조로 100만 달러 지원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 3. 순방 외교의 기대효과

#### (1)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투자교역의 확대

- 신흥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로 이어지고,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임
- 순방외교의 가장 큰 효과는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음.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표현되지 않지만 제품경쟁력 상승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역주의 형성에 사전 대비하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경제협력의 확대로 인한 지역 투자 기반 정비
- 민간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순방외교로 투자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투자진출 여건 개선
- 지역주의 우회 수출의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의 개선
- 중남미 각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 :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별적인 조치를 우회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

#### (2) 중남미 지역 거점 확보로 미주 시장 우회 진출 확대

- 미주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인한 무역수지의 개선
- 중남미 시장의 블럭화로 인한 수출 장벽을 타개하는 효과 : 칠레의 NAFTA가입,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결성 등으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에 사전대비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 NAFTA 및 MERCOSUR의 국내부품 사용 의무를 충족시킴으로써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신시장의 개척하는 효과

#### (3) IDB가입을 통한 중남미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본격적인 참여

-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의 가입 지지 확보로 수주 자격 확보

- 중남미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은 주로 IDB에서 조달되며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되어야 함. 아울러 중남미 지역경제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활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중남미 개발계획에서 사전 배제되는 것을 방지
- 가입 경위 : 1979년 가입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회원국들이 지분변경에 반대함으로써 가입 실패. 1994년 8차 증자가 좋은 기회였으나 실패하였음
- 순방외교를 통해 가입 지원 약속을 획득하였으므로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조속한 가입이 필요함
-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중남미 SOC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 중남미 지역은 SOC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남미 지역 전반의 SOC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4) 각국 민영화 계획 참여 등 경제개발계획 적극 참여

- 중남미 민영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 증대 예상
- 순방외교 중 민영화 계획 참여 계약 체결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의 민영화 계획을 활용하는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국가의 외채위기, 재정사정의 악화 등을 고려하면 민영화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자 확대 예상
- 남미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플랜트 수출의 증대
- 외향적·수출지향적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플랜트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5)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와 시장 교두보 마련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 자원의 원천적 확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원자재가격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안 요인 제거
-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입 가격의 안정 달성

### III. 政府 및 企業의 向後 課題

- (전략의 원칙) i) 우리의 세계화 전략과 중남미의 개발전략을 합치시키는 투자, ii)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투자, iii) 장기적·거시적 안목의 투자, iv) 문화·학술·체육 등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 쌍방이 이득을 보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정부의 과제) 순방 결과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장기적 해외투자비전을 수립하여 해외투자 지원 체제 정비
- (기업의 과제) 국내외 투자를 상호연계하여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철저한 현지화를 진행시키는 장기적 투자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1. 중남미 진출 전략의 원칙

##### (1) 정책 목표를 합치시키는 투자 전략의 수립과 집행

중남미 각국의  
외자 도입 정책  
의 목표는 자국  
의 성장과 자본  
의 유동성을 높  
이기 위한 것

- 중남미 각국의 경제개발 전략인 민영화, 脫規制 및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 전략의 목표

- 중남미 국가들의 민영화·脫규제는 시장기구를 활성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임
- 그러나 중남미 각국은 1980년대 공통으로 외채 위기를 경험하여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여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전략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방편임
- 따라서 중남미 각국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지 경제의 성장과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자본의 유동성을 높이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세계화 전략과 중남미 진출의 의의

- 우리의 세계화 전략은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의 확대균형과 해외 현지투자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임
- 지역주의가 광역화되어 가는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니즈(needs)에 맞게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새로이 성장하는

중남미 각국의  
 목표와 우리의  
 세계화 전략을  
 합치시키는 투  
 자 전략을 수립  
 함으로써 공영  
 을 추구

시장을 확보하고 주변시장에 대한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화 전략의 내용을 채워 나가기 위한 것임

○ 쌍방의 정책 목표를 합치시킴으로써 공영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의 마련과 집행

- 중남미 각국의 정책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조화시킴으로써 현지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세계화 전략을 합치시키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

(2)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활용하는 호혜 투자의 확대

중남미 국가의  
 공업화 단계,  
 산업구조는 우  
 리와 보완관계  
 에 있으므로 쌍  
 방에게 이득을  
 주는 투자를 확  
 대하는 원칙이  
 필요함

-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대체공업화의 경험은 있지만 수출지향형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흡수하고, 자본·기술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남미 시장의 신흥성장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이러한 시장은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지역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쌍방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
-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부국이지만 우리는 자원빈국으로 상이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임
-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에게 얻으려는 개발경험, 자본·기술과 우리가 얻으려는 자원·현지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쌍방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3) 지속적·장기적 안목의 투자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중남미 국가들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를 함께 만족시키는 투자는 단기적으로 성급한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 SOC 건설, 민영화계획의 참여, 자원개발 등의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

- 중남미 투자 성공의 관건은 중남미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계도로 접어드는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 전략이 요구됨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의 위기와 민중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계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중장기적 투자 계획이 필요함
  -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경제동물’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경우 우리의 향후 투자는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 현지 주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임. 따라서 중장기적인 투자 스케줄을 갖고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한 투자 기반의 정비

- 투자는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적인 요소가 성공을 좌우함 따라서 인적인 요소의 이해를 위해 문화·체육·학술교류를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주민과 국가에 친숙한 투자국·기업의 투자가 현지민과 마찰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임
  -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기업태도와 현지에 적합한 경영방식의 개발만이 해외투자의 성공을 가져옴
  -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는 투자국 및 투자대상국 쌍방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함
  - 투자 진출은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 이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
  - 투자 기반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쌍방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더욱 요구됨
  - 중남미 지역에 적합한 문화·학술·체육교류와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투자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투자성공의 지름길임
  - 중남미 주민들에 친숙한 축구 등 체육교류, 학술교류는 투자 기반 정비의 핵심임

2. 투자 전략

IDB가입 및 선진기업과의 합작 투자

○ SOC 건설 사업에의 참여 전략

-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의 가입을 통한 수주 자격의 획득 추진 및 미주 기업과의 합작 추진
- 선진국 기업과의 콘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참여기회 확대
  - IDB 미가입으로 인한 수주 기회 제한을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사업기회를 확대
- 국내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의 활용을 통한 SOC 건설 참여 기회 확대

○ 민영화 계획의 적극적인 활용

- 남미 각국의 민영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기회 확대
- 페루를 제외한 3국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민영화가 진전된 상태임. 이들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은 그 나라의 재정 상태 및 경상수지, 외채규모 등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의 향후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야 함

○ 자원의 조기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전략의 수립

광물, 농수산물, 임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장기 투자 전략

- 광물자원의 확보 : 탐사권·채광권 확보
  - 남미 4개국, 특히 브라질과 페루 등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며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의 광물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의 확보를 위한 농장개발
  - WTO체제에서 농산물이 주요 교역재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식량자원의 적극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농장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수산자원의 확보
  - 어업협정 등을 통해 이 지역 수산자원예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가공과 교역을 위한 가공시설 및 냉동창고의 건설, 냉동운반선 건조에 투자
- 임산자원의 확보

- 남미 지역은 기후와 지형 측면에서 임산자원의 확보 및 조성을 위해 매우 우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단순한 벌목보다는 조림지 확보→조림→벌목 >가공과 같은 임산자원 생산의 일관 공정을 갖추는 투자가 필요함

### 3. 정부의 과제

#### (1) 순방 외교 성과의 조속한 마무리 작업

IDB가입, 투자 보장협정의 조기 완결로 투자 진출의 장애 제거

##### ○ IDB의 조기 가입 완료

- 남미 순방시 약속받은 우리의 IDB 가입을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조기에 IDB에 가입함으로써 중남미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 중남미 각국과의 투자보장 협정을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투자 진출의 장애 요소 제거

##### ○ 민간 경제협력 위원회의 활동 체계 정비

- 각국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주변국 진출과 국가간 사업의 정보체계 마련

#### (2) 중장기적 해외투자 진흥 전략의 수립

민관 공동으로 중장기 해외투자 비전 수립

##### ○ 세계화 전략에 상응하는 중장기 해외투자 비전 수립

- 지역주의화와 수입규제, 통상마찰 등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해외투자 비전을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함으로써 해외투자의 기본지침을 마련
- 세계화 전략의 완성은 해외투자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이룩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 이러한 인식의 공유는 해외투자 비전을 통해 가능하고 해외투자 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시켜 기업의 장기적 해외투자 전략 수립을 가능케 함
- 해외투자 비전은 중남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

팔하는 총체적 전략이어야 함

(3)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체제 정비

해외투자규제  
완화 및 지원자  
금의 대폭 확충

○ 해외투자 규제의 완화

- 자기자금 조달 비율(20%) 등의 규제 완화

○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의 확충

- 해당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IDB 미가입과 해당국의 재원 부족을 국내의 「經濟開發協力基金(EDCF)」 재원을 활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EDCF자금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원 분담금의 증대가 요구되는 데, 이를 EDCF자금의 확대에 이용하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 자원 개발 지원 체제 확충

- 중남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 : 광업진흥공사의 지원 및 자본금 확충
- 광업진흥공사의 지원 확충 : 현재 연간 150억 원 → 연간 1천 억원 이상
- 광업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융자 기능 활성화 : 현재 자본금 1,500억 원 → 5,000억 원

(4) 투자 기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문화·학술 교류  
기금의 마련과  
해외한국학연구  
센터의 건립으  
로 투자기반 확  
대

○ 문화·학술 교류 기금의 마련

- 문화·학술교류 기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개척하려는 신흥 시장과의 문화·학술교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투자기반 확대를 도모함

○ 해외 한국학 연구 센터의 건립

- 한국 기업 투자 지역(EU,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의 거점 국가에 그 지역 문화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해외 한국학 연구 센터를 건립

4. 企業의 과제

(1) 中장기 해외투자 전략의 수립

투자의 성공요인은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의 수립임  
민관협동으로 철저한 전략 수립 필요

○ 중장기 해외투자 전략의 필요성

-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투자는 투자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단지 시설재의 공급만을 위한 플랜트, 공장의 건설은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때 다시 철수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해당 투자 자체가 이익을 남기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해외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함

○ 투자지역과 투자산업의 적절한 배분

- 일부 국가에 집중된 투자는 국가간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별, 국가별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함

○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고 분산시켜 한 지역의 일시적 사정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의 수립

(2) 국내외투자를 연계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외 투자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공동화 방지

○ 해외투자가 국내의 쇠퇴 산업을 이전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외 투자를 적절히 분배하고 연계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쇠퇴 산업이라고 인식되는 산업의 이전은 국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임
- 쇠퇴산업일지라도 산업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생산공정의 적절한 분할과 연계가 그 방법임
- 국내 산업 기반과 해외투자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산업공동화를 회피하는 것이 요구됨
-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해외투자의 성공 요건이 됨.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할 경우 해외로 이전된 산업은 부메랑 효과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

(3) 철저한 현지화의 추진

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성과 극대화

○ 철저한 현지화만이 해외투자의 성공 요건

- 단기 성과에 급급한 투자는 중남미 각국의 투자 여건과 국민 분위기, 즉 민주주의적 전통,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갈등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및 한국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문화, 사회 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기업도 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문화행사, 국내외 인적 교류 등의 확대를 통해 현지 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만 투자는 성공할 수 있음

(4) 과당경쟁의 자제

○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결국 국내기업의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적절히 자제하는 것이 필요

- 투자 정보의 공유 체계 마련
- 해외 투자시 국내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추진

(5) 새로운 환율관리기법 및 Project Financing 기법의 개발

○ 중남미 각국은 1980년대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환율의 불안정은 투자의 위험성을 높여 투자의 효율성을 감소시킴

- 다양한 외환 구성을 통한 리스크 헤지 기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SOC투자, 플랜트 투자 등은 거대 자금이 소요되지만 중남미 각국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project financing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이 용 우)

<부록> 1. 남미 4개국의 경제 정책 기초

| 구 분      | 브 라 질  | 아르헨티나  | 칠 레  | 페 루  |
|----------|--|--|--|--|
| 거시경제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제 정책 실시 (Cardoso Plan)</li> <li>- MERCOSUR 발효</li> <li>- 공업 현대화 계획</li> <li>- 대형프로젝트 추진</li> <li>- 화폐 개혁 일부 단행(1994년 7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 신경제 정책 실시와 경제활동 전면 자유화 조치</li> <li>- MERCOSUR 통합 적극 추진</li> <li>- 95년 실업 대책 발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으로 민간 주도 투자 장려, 수출 주력형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 견지</li> <li>- 대형 프로젝트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 이후 경제 안정화 정책 및 시장 개방 정책 단행</li> <li>-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li> </ul>  |
| 통상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채 상환의 타개책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li> <li>- MERCOSUR에 찬성하나 NAFTA 가입에는 미온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수입 부가세 부과로 수입 억제</li> <li>- 남미 시장 통합 및 NAFTA 가입에 우호적인 입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가입을 계기로 對 아시아 교역이 증가 추세</li> <li>- 95년 NAFTA 가입 협상 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완전 자유화 추구</li> <li>- 94년 안데안* 그룹에 점진적인 복귀를 결정</li> </ul>      |
| 외국인 투자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대한 영토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세제 및 금융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일시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외국인 투자법 (DECREE LAW 600)을 제정, 외국인 사업 운영에 국내 기업보다 우호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 진흥법을 기본 골격으로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보유한 국가임</li> </ul> |

주: \* 안데안 그룹: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볼리비아, 페루

<부록> 2. 순방국 주요 경제지표(1995년)

| 국가    | 인구<br>(만명) | GDP<br>(억불) | 1인당 GDP<br>(불) | GDP 성장률(%)            |                       |      |
|-------|------------|-------------|----------------|-----------------------|-----------------------|------|
|       |            |             |                | 75 ~ 84년 <sup>1</sup> | 85 ~ 95년 <sup>1</sup> | 95년  |
| 과테말라  | 1,030      | 123         | 1,243          | -                     | 3.6                   | 4.9  |
| 온두라스  | 589        | 39          | 650            | 3.9                   | 3.4                   | 3.6  |
| 니카라과  | 450        | 29          | 644            | △2.8                  | △1.3                  | 4.2  |
| 코스타리카 | 323        | 82          | 2,844          | 2.1                   | 4.7                   | 2.5  |
| 엘살바도르 | 570        | 86          | 1,509          | △2.8                  | 4.1                   | 6.0  |
| 아르헨티나 | 3,430      | 2,900       | 8,465          | 1.0                   | 2.8                   | △4.4 |
| 브라질   | 15,590     | 9,896       | 4,423          | 3.0                   | 1.5                   | 4.2  |
| 페루    | 2,390      | 580         | 2,426          | 1.3                   | 0.4                   | 6.9  |
| 칠레    | 1,390      | 673         | 4,700          | 3.7                   | 7.1                   | 8.5  |

| 국가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무역(억불) |       |       |
|-------|-------------|-------|------|--------|-------|-------|
|       | 75년         | 85년   | 95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과테말라  | 13.2        | 18.7  | 8.6  | 20.9   | 30.7  | △9.8  |
| 온두라스  | 8.4         | 3.4   | 26.8 | 11.4   | 15.0  | △3.6  |
| 니카라과  | 7.5         | 219.5 | 11.1 | 4.9    | 8.6   | △3.7  |
| 코스타리카 | 17.4        | 15.1  | 22.6 | 25.8   | 32.7  | △6.9  |
| 엘살바도르 | 19.1        | 22.3  | 11.4 | 16.6   | 33.5  | △16.9 |
| 아르헨티나 | 182.6       | -     | 1.6  | 208.3  | 198.9 | 9.4   |
| 브라질   | 29.1        | 226.9 | 23.2 | 465.0  | 497.0 | △32.9 |
| 페루    | 23.6        | 163.4 | 10.2 | 55.7   | 76.9  | △21.2 |
| 칠레    | 374.7       | 30.7  | 6.6  | 160.4  | 146.5 | 13.9  |

| 국가    | 對韓 무역(억불) |       |       | 투자현황 <sup>2</sup><br>(백만불) |                  | 외채<br>(억불) | 외채 <sup>3</sup><br>상환율<br>(%) |
|-------|-----------|-------|-------|----------------------------|------------------|------------|-------------------------------|
|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95년                        | 96년6<br>월말<br>누계 |            |                               |
| 과테말라  | 0.04      | 1.09  | △1.05 | 1.1                        | 48.8             | 30.4       | 9.3                           |
| 온두라스  | 0.33      | 0.83  | △0.50 | 4.1                        | 52.0             | 42         | 28.7 <sup>4</sup>             |
| 니카라과  | 0.10      | 0.22  | △0.12 | 2.2                        | 5.6              | 104        | 52.9 <sup>4</sup>             |
| 코스타리카 | 0.03      | 0.57  | △0.54 | 3.3                        | 32.8             | 36.7       | 16.7                          |
| 엘살바도르 | 0.001     | 0.542 | △0.54 | 1.2                        | 10.9             | 25.7       | 14.5                          |
| 아르헨티나 | 1.32      | 3.05  | △1.73 | 20.0                       | 94               | 826        | 36.7                          |
| 브라질   | 13.9      | 15.19 | △1.30 | 19.9                       | 153              | 1,450      | 29.1                          |
| 페루    | 1.30      | 1.94  | △0.54 | 0.3                        | 2                | 272.8      | 21.5                          |
| 칠레    | 10.20     | 6.37  | 3.84  | 35.9                       | 47               | 236        | 24.7                          |

<sup>1</sup> 기간중 평균 GDP 성장률

<sup>2</sup> 허가기준(96년6월말 현재)

<sup>3</sup> 총수출 대비 외채상환율

<sup>4</sup> 94년 통계